

멜로드라마와 4.19 혁명의 서사적 결합

—박경리의 1960년대 대중연애소설 『푸른 운하』, 『노을 진 들녘』

다시 읽기*

김 양 선**

요약

이 논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문학사와 4.19 재현 소설연구의 단일성을 규정하고자 한다. 첫째, 순수문학 대 참여문학, 본격문학, 단편소설로 상징되는 1960년대 남성 중심의 문학 장의 주변에서 대중·독자와 소통했던 대중연애소설의 의미를 밝히고, 둘째, 남성-청년-지식인 중심의 4.19 소설연구에서 배제되어 왔던, 4.19 혁명을 다룬 '여성' 작가의 대중연애소설을 적극적으로 다시 읽는 것이다.

이 논문은 박경리의 1960년대 대중연애소설 『푸른 운하』와 『노을진 들녘』을 중심으로 멜로드라마와 4.19혁명이 서사 내에서 결합하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푸른 운하』와 『노을진 들녘』이 자유당 정권 말기의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혼란과 불안정성의 상태를 멜로드라마의 양식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분석하였다. 두 소설은 멜로드라마의 '도덕적 비의'와 '선정주의'를 부각하면서도 돈과 권력에 기반한 기성세대의 로맨스와 순수와 낭만을 지향하는 청년 세대의 우울하지만 열정적이거나 순수한 사랑을 대조적으로 그린다. 악인의 몰락과 선인의 승리, 선정성과 폭력성을 압도하는 순수, 낭만이라는 결말을 통해, 4.19 직후 청년-지식인 세대에 대한 작가의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3장에서는 두 소설이 공통적으로 4.19 혁명을 신문기사나 보고서, 작가의 직접적 논평을 빌려 서사화한 점에 주목했다. 4.19 혁명이 르포르타주, 신문기사, 작가주석적 서술로 멜로드라마에 기입, 기술되는 것은 박경리의 4.19 재현 소설의 고유한 특징이다. 그런 서사적 특성을 인정하고, 4.19의 정신이 4.19 이후 청년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HRF-201907-017)

**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부교수

세대에게 미친 영향력은 텍스트의 이면을 섬세하게 읽으며 찾아낼 수 있다. 연대와 포용, 책임감과 도덕감정의 회복이라는 청년 세대의 정신은 4.19 혁명이 짧지만, 객관적으로 작품에 기록됨으로써 개연성과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두 소설은 여성작가의 장편대중소설이 혁명이라는 사회역사적 장면을 '다룬' 방식으로 그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의 외연을 확장하고, 대중소설의 정치성을 재고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4.19 이전의 절망과 불안, 우울, 5.16 이후의 반동화 사이에 낀 1년 남짓으로, 아직까지는 젊은 세대의 책신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박경리는 회생과 책신을 통해 자기와 공동체를 구제할 존재로서 젊은 세대를 형상화했다. 세대적으로는 청년, 지리적으로는 고향-시골을 순수와 순정, 노스텔지어와 재생의 의미로 텍스트에 새겨 넣음으로써 4.19 이후의 열망과 기대를 서사화한 것이다.

주제어: 4.19혁명, 연애소설, 멜로드라마, 도덕적 비의, 선정주의, 청년 세대, 순수

목차

1. 문제제기-4.19 소설 연구의 빈틈 메우기
2. 사회비판 멜로드라마와 청년 세대의 사랑
3. 신문기사와 리포트, 멜로드라마에 기입(記入)된 혁명
4. 결론-포스트 4.19 1년, 연대와 순수의 시간

1. 문제제기-4.19 소설 연구의 빈틈 메우기

196·70년대는 대중소설의 시대라고 불린다. 특히 1960년대는 문해력을 가진 독서 인구의 증가, 대중매체의 발달, 여가문화의 부상에 힘입은 베스트셀러의 출현 등 문학 대중화가 막 활성화된 시기이다. 신문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종합일간지나 여성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매체 구독률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신문이나 잡지가 창작 활동의 주된 장으로 부상했다. 여성작가들은 이 매체의 연재소설의 주된 필자였다. 중앙지는 물론 지방지에까지 빠지지 않고 연재되었던 대중소설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연애소설이다.¹⁾ 최근 연구영역이 확장되면서 이 시기 대중 연애소설이 문학연구의 장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학술연구의 장, 특히 한국 현대문학사 서술에서는 오랫동안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60년대 문학을 대표해 온 것은 ‘한글세대’들의 ‘감수성의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남성작가의 순수문학이었다. 그리고 1960년대 문학 장의 새로운 움을 이끈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4.19라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건이었다.²⁾ 하지만 4.19 혁명의 소설적 형상화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듯이 4.19를 ‘직접적’으로 그린 소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나마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생, 지식인 집단의 관점에서 4.19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³⁾ 다행히도 최근 4.19 혁명을 대학생·청년·지식인 주도의 운동사로 보는 단일한 관점, 젠더·계층·학력의 단일성 범주를 지양하고, 여성과 하층민 등 다양한 소수자들을 포함한 시민혁명의 맥락에서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⁴⁾ 이 논문은 기존 문학사에서 1960년대 문학과 4.19 재현 소설을 서술하고 평가할 때의 단일성 내지 획일성을 교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순수문학 대 참여문학, 본격문

1) 연애소설이란 남녀 간의 사랑을 행동 발전의 중심축으로 하여 사건이 시작되고 종결되는 소설을 가리킨다. 대중연애소설이 그리는 사랑은 성과 섹슈얼리티와 혼재되어 있으며, 한 사회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정서의 구조이다. 진선영은 대중연애서사는 사랑의 담론이 여타 권력이나 지식과 결합하고 대결하면서 특수한 주체를 성립시키는 일련의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진선영, 『한국 대중연애서사의 이데올로기와 미학』, 소명출판, 2013, 31면, 293면

2) 장성규, 『혁명의 기록과 서발터니티의 흔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13면

3) 위의 논문, 16면.

4) 장성규, 앞의 논문; 백지연, 『4.19혁명과 젠더평등의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84면; 김미란, 『젊은사자들의 혁명과 증발되어 버린 그녀들』 4월혁명의 재현 방식과 배제의 수사학』, 『여성문학연구』 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87면, 109-110면.

김미란은 4월 혁명을 다룬 소설들이 대학생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민중, 불량배, 여성 등을 배제했다고 본다. 수기나 신문기사, 기록물에서 하층민 여성들의 참여는 혁명사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여성인물들의 혁명참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 단편소설로 상징되는 1960년대 남성 중심의 문학 장의 주변에서 대중-독자와 소통했던 대중연애소설의 의미를 밝히고, 둘째, 남성-청년-지식인 중심의 4.19 소설연구에서 배제되어 왔던, 4.19 혁명을 다룬 ‘여성’ 작가의 대중연애소설을 적극적으로 다시 읽고자 한다.

표면적으로 여성작가들이 4.19 혁명을 직접적으로 소설의 소재로 삼거나 형상화한 것은 극히 드물다.⁵⁾ 하지만 4.19 혁명과 이어진 5.16 군사쿠데타가 여성작가들에게 한국 사회의 변동이라든가 정치에 대해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4.19 세대라 불리는 김승옥, 최인훈 등 문화엘리트들의 소설이 4.19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정신의 미학을 대표하는 순수문학의 정전으로 지금까지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한편에서 대중/통속/연애/가족의 프레임으로 수렴되는 여성작가들의 장편소설들이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 대중연애소설들은 4.19와 5.16으로 이어지는 혁명과 반동의 시대에 아예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4.19세대 남성작가-순수문학-단편소설 중심으로 재편된 1960년대 문학 장의 외부에서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소설을 썼던 박경리에 주목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다룬 『푸른 운하』(『국제신보』, 1960. 9.6-1961. 4.19)와 『노을진 들녘』(『경향신문』, 1961.10~1962.6)은 『성녀와 마녀』(1960.4~1961.3), 『김약국의 딸들』(1962), 『시장과 전장』(1964)과 같은 박경리의 『토지』 이전 문제작이자 베스트셀러들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

5) 추신진은 1960년대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 4·19혁명이 재현된 것은 한무숙의 『대열 속에서』(1961)와 송원희의 『혈혼』(1968) 단 두 편이라고 말한다. 그마저도 한무숙의 『대열 속에서』는 여성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여성 작가라고 하더라도 4·19혁명의 현장 안에 여성의 모습을 찾기보다는 남성적 질서 내에서 재구성된 4·19혁명의 이미지에 맞추어 아버지와 아들로 표상되는 친구 세대,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 사이의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4.19혁명의 주체로 청년 대학생과 남성 지식인을 호명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추신진, 『4·19 소설의 여성 표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59면

었지만, 언급한 대표작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여성의 정체성과 섹슈얼리티, 낭만적 사랑을 근대전환기나 한국전쟁기라는 한국현대사를 배경으로 직조해냈던 작가의 전례를 볼 때 이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소설들 역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섬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두 소설의 공통점은 낭만적 혹은 열정적 사랑을 4.19 혁명이라는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사건과 결합하여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경리의 『푸른 운하』는 4.19 직후에, 『노을 진 들녘』은 이듬해에 발표되었다.⁶⁾ 두 소설이 4.19의 자장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 소설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혁명과 멜로드라마가 서사적으로 절함하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대중연애소설은 멜로드라마의 장르적 관습에 부합한다. 멜로드라마란 통상 주정주의와 감상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하위 장르를 말한다. 멜로드라마의 근본 요소는 '과잉'으로 요약될 수 있는 지나친 혹은 과장된 특성이다. 멜로드라마는 히스테리나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기 직전의 인물들 혹은 감정적 속박으로 고통받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고 악인의 증오, 시기, 질투, 앙심, 악의를 표현할 때 감정 과잉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과도한 감정, 도덕적 양극화, 선정주의는 멜로드라마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⁸⁾

6) 『노을 진 들녘』은 연재 후 곧장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1965년 신성일, 엄앵란 주연의 영화로 각색되는 등 당시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다.

7) 절함(articulation)은 “마디와 마디가 관절처럼 맞붙어 들이면서도 하나로 작동하는 상태(또는 구성체계)”로 정의된다. 절함은 접합이나 통합처럼 동질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복수적이고 이질적인 실천들 간의 유동적인 결합과 분리의 동시 작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논문에서는 ‘멜로드라마’와 ‘혁명’이라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변증법적으로 상호영향을 미치고 결합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데 쓰고자 한다.

8) 벤 싱어, 이위정 옮김,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63-66면.

피터 브룩스도 강렬한 감정 표출, 도덕적 양극화와 도식화, 존재·상황·행동의 극단적 상태, 공공연한 악행, 선한 자에 대한 박해와 선행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 과장되고 지나친 표현, 비밀스런 음모와 서스펜스와 아슬아슬한 페리페티(peripety, 逆轉)를 멜로드라마의 특성으로 정의한다.

피터 브룩스, 이승희·이혜령·최승연 옮김,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41면.

한편 멜로드라마의 근대성, 사회성에 주목하면, 멜로드라마는 도덕적으로 불명확하고 물질적으로 취약한 탈신성, 탈봉건, 탈주술화된 세계에서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이 무력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근대적 삶의 불안정성을 그리고 있다. 멜로드라마는 가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근대 자본주의의 물질적 삶에 놓인 개인의 무능력함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시적 정의(poetic justice)와 미덕이 함께 할 것이라는 보상적 믿음을 대중에게 제공했다.⁹⁾ 이 논문에서는 『푸른 운하』와 『노을진 들녘』이 자유당 정권 말기의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혼란과 불안정성의 상태를 멜로드라마의 양식에 녹여냈다는 점, 대중에게 익숙한 멜로드라마에 신문 기사, 작가의 직접적 해설이라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기입하는 서사전략을 구사한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2. 사회비판 멜로드라마와 청년 세대의 사랑

『푸른 운하』와 『노을진 들녘』은 시골 출신의 순진한 젊은 여성이 유부남과의 사랑(『푸른 운하』)이나 근친상간(『노을진 들녘』)과 같은 이성애적 질서에서 벗어난 관계로 인해 고통받다가,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는 점에서 멜로드라마의 공식을 충실히 따른다. 그러면서도 세대갈등이라든가 혁명 전후의 사회변동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푸른 운하』의 국회의원 김상국은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이미 몰락의 조짐을 보이는 자유당으로 소속을 옮기면서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고, 남식의 아버지 김 사장은 국회의원 H의 비호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며, 김 의원의 아내 찬희와 그녀의 법률자문을 맡은 윤 변호사는 적산물자를 불

9) 벤 싱어, 앞의 책, 199-206면.

하받았다가 사기를 당한다. 『노을 진 들녘』에서도 영재의 아버지 윤현국 씨는 경찰간부로 자유당 정권에 영합해 권력을 누리는 부도덕한 기성세대이다. 아버지의 이런 처세는 아들 영재에게 혐오감을 자아내며, 그가 가진 우울감, 사촌동생 주실을 강간할 때 보여주는 성적 충동과 폭력성의 기원이 된다. 두 소설은 정치철새, 정경유착 등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한국의 기형적인 정치경제 상황을 기성세대의 도덕적 타락과 연결지어 보여준다. 게다가 기성세대의 정치, 경제적 타락은 성적 타락과도 얽혀 있다. 『푸른 운하』에서 기성세대인 국회의원 김상국은 따로 작은집을 두고 있으며, 김상국의 처 찬희와 그녀의 이혼문제와 재산관리를 맡았던 윤변호사는 어느 순간 육체적 관계로 발전한다. 이치윤의 아내(였던) 경란은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H의원과 동거를 하고, 그의 권력을 이용해 이치윤에게 린치를 행사하기도 한다. 『노을 진 들녘』에서 영재의 아버지 윤현국씨도 재혼을 한 후 아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심지어 아들의 연인인 일혜의 언니 신혜와 불륜 관계이다. 이들의 부도덕한 로맨스는 기성세대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각각 김상국의 사망, 찬희와 윤변호사 사업의 파산, 윤현국 씨가 고위직에서 낙마하는 것으로 마감된다. 이는 기성세대에 대한 도덕적 단죄, 새로운 세대의 도래를 암시한다.¹⁰⁾ 4.19라는 사회역사적 사건은 이런 극적 전환의 계기가 된다.

소설은 4.19 직전을 배경으로 기성세대의 타락때문에 청년·지식인들이 겪는 무력감과 우울, 불안울 반복적으로 서사화한다. 이들의 정서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년 세대의 우울하지만, 순수한 로맨스로 형상화된다. 하지만 순수하고 순정한 로맨스에 도달하기 위해, 독자는 선악의 이분법,

10) 프랑스 혁명을 가족로망스의 맥락에서 다룬 린 헨트에 따르면 혁명 전야에 아버지들은 문학에서 쟁점이 되었다. 장르상 비극이건 희극이건 혁명 이전의 소설들은 위기에 처한 가정을 그리고 있으며, 각 경우의 위기는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반항하거나 자식들을 포기하는 아버지들의 행동에 의해 촉발된다. 그리고 나서, 정치적 아버지의 살해, 형제들의 새로운 가족 로망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린 헨트, 조한욱 옮김,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새물결, 1999, 59면, 85면을 참고할 것)

‘도덕적 비의’와 선정주의, 감정과잉과 같은 멜로드라마의 양식으로 포장된 ‘격렬한’ 서사를 경유해야 한다. 특히 두 소설에서 히스테리나 신경쇠약 직전의 인물, 우울증, 혐오감, 폭력성과 같은 극단적인 감정으로 고통받는 인물들은 청년·지식인·남성 주인공들이다. 『푸른 운하』의 이치윤은 아내 경란이 결혼 후에도 복잡한 남자관계와 사치를 일삼다가, 아이를 버리고 출분(出奔)을 하자 우울증에 걸린 상태이다. 『노을 진 들녘』의 영재는 아버지 윤현국과의 갈등, 주실에게 성적 폭력을 가했다는 죄책감, 세상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인 감정을 때로는 우울하게 때로는 분노로 표출한다.

한편 청년 세대의 연애서사 안에서도 다양한 삼각관계가 그려지고 있다. 『푸른 운하』의 핵심 스토리라인은 마산 출신 20세 여성 송은경과 국회의원 보좌관인 이치윤의 연애이다. 이 작품에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송은경과 이치윤의 연애서사 이면에서 작동하면서 소설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은 이치윤과 이혼을 앞둔 경란의 욕망과 음모이다. 경란은 “사치스런 교양과 감각과 이기심, 그것을 증오하면서도 그것에 끌려”가게 할 정도로 마성적인 매력을 지닌, 팜프파탈같은 속성을 지닌 악한 인물이다. 이치윤에게 “쫓아가면 달아날 여자”, “(결혼 생활) 삼 년 동안이나 그를 소유했어도 그 여자의 머리카락 한오라기도 자기 것이 아니었더라는 아쉬움”을 자아내는 그녀는, 결혼한 후에도 다른 남자들과 자유롭게 교제를 하는 등 남성 중심의 이성애 질서에 포획되지 않은 존재이다. “나는 나대로의 인격이 있고 행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힘도 날 지배하진 못한다.”는 의식을 지닌 경란은 당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아프레겔의 범주에 들어간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얼굴, 멋이 있고 세련된 포즈, 오만무쌍한 콧대, 생명감이 없는 예술품으로 이치윤의 시각으로 묘사되는 경란은 사랑과 섹슈얼리티를 자신의 신분상승이나 쾌락과 교환하는 보기 드문 여성이다.

소설에서 은경과 경란은 선과 악, 순수와 타락, 성녀와 마녀의 대립적

인 여성상으로 형상화된다.

이치윤을 쫓아오는 여자는 경란이 혼자가 아니다. 은경이도 쫓아오는 여자다. 쫓아옴으로써 경란이 그 신선한 매력을 잃었다면 은경은 쫓아옴으로써 신선한 매력을 더 강하게 풍겨주었다. 이러한 마찬가지로 행동에서 일어나는 상반된 현상의 원인은 이치윤의 마음속에 이는 신비한 조화이기보다 두 여자의 진실성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니었을까?

은경이 심장으로 부딪쳐왔다면 경란은 손끝으로 다가온 것이다. 경란이 병적인 자존심과 자기 미모에 대한 영원한 자부심, 그리고 승리의 쾌락을 위한 농락의 기분은 결국 청포도같은 은경의 순정 앞에 빛을 잃은 것이다.¹¹⁾

이치윤에게 은경과 경란은 진실성과 위악, 쾌락과 순정, 선과 악이라는 대립적 자질로 인식된다. 이 이분법은 대중연애소설의 멜로드라마가 흔히 취하는 공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란을 제외하면, 청년 세대의 사랑에는 사회적 지위, 돈과 같은 교환가치가 개입하지 않는다. H의원이 강패를 동원해 이치윤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치윤과 경란의 이혼이 성립된다. 결국 이 소설은 이치윤-은경의 순수한 사랑이 이치윤-경란의 계산적 관계를 이기는, 악인의 패배와 선인의 보상으로 끝난다.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김남식이 은경을 사랑하면서도 돈이나 권력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은경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구세대와는 다른 청년 세대의 건강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을 진 들녘』의 경우 작품의 대중성을 견인하는 멜로드라마의 특성은 선정주의로 드러난다. 뒤틀린 성의식, 불륜, 근친상간, (성)폭력, 강제

11) 박경리, 『푸른 運河-박경리문학전집 21』, 지식산업사, 1988, 236면
앞으로 해당 소설의 인용은 이 책의 면수를 따르기로 한다.

결혼, 유산상속을 둘러싼 음모 등이 그것이다. 먼저 영재와 주실의 근친상간, 정확히는 영재의 일방적인 성폭력부터 보자. 서울도시에서 문명인이자 부르주아 엘리트로 지냈던 영재의 도덕감정은 시골이라는 비문명의 공간에서 해제되고, 자신의 충동적인 욕망과 야만성을 극단적으로 표출하게 된다. “우리알같이 그들이 없는 주실의 눈은 영재에게 견딜 수 없는 정욕을 불러일으킨다. 무지한 그 눈은 영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만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별천지인 송화리의 산야는 도처에서 영재에게 범죄를 권고하는 듯 밀어붙 속삭이는 것이었다.”¹²⁾와 같은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소설은 ‘1장 태풍(颱風)’에서부터 영재의 욕망과 반이성적 충동으로 촉발된 성적 폭력의 장면을 휘몰아치듯 보여준다. 둘째, 악인형 인물로 나오는 성삼과 그의 어머니인 김서방댁은 마치 『토지』의 임이네나 김두수를 떠올릴 정도로 탐욕과 악의 화신으로 묘사된다. 시나리오를 쓴답시고 백수건달로 지내던 성삼은 영재와 어린 시절 동무였으나 신분이 다른 데서 오는 열등감으로 영재와 주실에게 정신적으로 복수를 꿈꾸는 인물이다. “그들은 상전이고 나는 하인”으로 언제나 짓밟혀 왔으므로,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짓밟아 주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을 보면 성삼의 악의 근원에 계층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성삼은 천성적으로 악한 인물이다. 셋째, 자살이나 살인에 가까운 동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해결 방식이다. 송노인은 성삼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주실과 결혼하고 주실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그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김서방댁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뒤 목을 매 자살한다. 영재는 주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성삼과 함께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는다. 요컨대, 근친상간, 불륜, 자살, 살인과 같은 문명에 대립되는 야만, 근대 법체계에 대한 위반, 이성과 절제와는 거리가 먼 충동과 욕망이 서사를 이어가는 동력이 된다.

12) 박경리, 『노을 진 들녘-박경리문학전집 2』, 지식산업사, 1979, 33면
앞으로 해당 소설의 인용은 이 책의 면수를 따르기로 한다.

주실은 이 서사적 동력의 심부(深部)에 자리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송화리라는 공간과 주실의 주체로서의 위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골/농촌은 광기와 인신매매, 가난이 횡행하는 야만적이고 전근대적인 장소이다. 레이 초우의 말대로라면 희망 없는 상황에 갇힌 여성이 문화적 억압과 교환, 상품화의 과정을 체현하는 장소가 시골이다.¹³⁾ 주실은 야만, 미개, 미몽의 상태에 있다. 할아버지 송노인이 불의의 열차사고로 딸과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자, 문명을 저주하면서 바깥 세계와 단절된 채 손녀에게 근대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장해서 처녀가 된 주실은 영재의 강간, 이들의 비밀을 악용한 성삼과의 결혼과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채 성적으로 착취당한다. 하지만 주실은 시골을 탈출해서 서울-도시로 나와 양심적인 지식인 동섭의 교육과 자신의 도덕적 타락을 속죄하려는 영재의 희생을 통해 성삼의 성적, 육체적, 경제적 착취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¹⁴⁾ 근대-도시의 외부에 존재한/존재했던 주실은 자신이 연애를 주도하는 주체는 아니다. 능동적 삶의 주체는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주실은 영재에게는 이성적 존재이자 자유인이라는 남성-청년 주체의 허위의식을 깨고, 자기 안에 있는 폭력성을 깨닫게 하는 존재이다. 성삼에게는 계층상승과 소비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단이지만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주실은 이성과 문명, 때로는 욕망으로 얼룩진 근대의 외부에서 바로 이 근대의 모순을 폭로하는 존재로서 의미가 있다.

13) 레이 초우, 정재서 옮김, 『원시적 열정』, 이산, 2004, 73-76면

14) 강지희는 『노을 진 들녘』에서 주실의 형상화를 적극적으로 읽어낸다. 그에 따르면 시골과 서울에 자리하는 인물들은 무력함이나 죄의식때문에, 또는 악행에 대한 인과응보 등으로 모두 죽는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채, 동섭의 교육과 계몽을 거부하는 주실은 비(非)계몽의 주체로서, 주실의 존재 그 자체가 4.19 혁명이 배제한 시민성과 1960년대 새로운 국가체제의 한계를 지시한다고 분석한다.

강지희, 『4.19 혁명의 재현과 여성 시민권의 창출, -박경리와 손장순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17면

선정성, 폭력성, 도덕적 위반으로 점철된 격렬한 멜로드라마를 통과한 청년 지식인들은 고향시골(농촌)로 귀환한다. 『푸른 운하』의 이치윤은 4.19 후 고향시골로 가며, 은경이 그를 뒤쫓아가는 것으로 소설이 끝난다. 고향시골은 다시 순수와 희망, 노스탤지어의 장소가 된다. 『노을 진 들녘』에서는 영재의 죽음 후 주실이 고향 송화리에서 평화를 찾고, 수명과 동섭이 송화리를 방문해서 ‘고운 날’을 함께 보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 다소 낭만적인 결말은 박경리 장편대중소설의 특징인 ‘낭만성’을 답습한 것이기도 하지만 4.19 이후 5.16으로 이어지는 반동기에 도시 서울에서 혁명이 초래한 열광과 혼란상에 대한 경계가 역설적으로 고향시골에 대한 선호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마지막으로 눈여겨 볼 점은 남성-청년-지식인의 죽음(영재, 상호, 성삼) 이후에 살아남은 자는 누구이며, 이들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기획하고 있는가이다. 살아남은 자(주실, 수명, 동섭)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거나,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지 않은, 쉽사리 우울증과 염세주의, 자학에 빠지지 않은, 비교적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들이다. 악인의 몰락과 선인의 승리, 선정성과 폭력성을 압도하는 순수와 낭만의 옹호라는 결말을 통해, 4.19 직후 청년-지식인 세대에 대한 작가의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15) 박경리의 장편대중소설에서 근대성과 도시에 대한 불안감과 혐오의 감정이 시골이나 섬에 대한 향수로 드러난 예는 일종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드러난다. 『푸른 운하』와 『노을 진 들녘』의 고향시골은 이런 박경리 소설의 지속적 측면과 맞닿아 있다. 『표류도』와 『파시』의 섬, 『시장과 전장』의 농촌과 같은 박경리 소설에서 문명화되지 않은 공간이 지닌 반(反)근대의 현실비판적 의미는 아래 논문을 참고할 것.

김양선,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페미니즘연구』 8(2), 한국여성연구소, 2008, 197-222면 ; 김양선, 『향토 멜로드라마와 여성의 위치성-박경리의 『파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69-292면

3. 신문기사와 리포트, 멜로드라마에 기입(記入)된 혁명

혁명은 인간이 빚어낸 사건 중에서 가장 스펙터클한 이야기이며,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이 넘쳐흐르는 장이다. 이 논문은 혁명과 멜로드라마가 절합할 가능성이 스펙터클한 사건, 정념, 정동, 감정의 격동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두 소설이 4.19 혁명을 그리는 방식은 언뜻 4.19가 저급한 형상화 수준에서 볼 수 있듯 소재로만 쓰인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정념, 정동, 감정의 격동은 연애, 멜로드라마가, 4.19라는 스펙터클한 사건은 르포르타주 혹은 신문 기사를 차용해 기록하는 것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 소설에 이질적으로 섞여 있는 이 서사적 절합의 속성을 박경리의 4.19 재현 소설의 특징으로 보고자 한다.

『푸른 운하』는 4.19 혁명 전야의 혼란스러운 사회와 정권의 부패상을 이치윤이 취재 차 시골로 가면서 목도한 농촌의 혈벗은 모습으로 포착하는가 하면, 남식과 아버지 김사장의 대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아버지는 노엽게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대하여 눈을 가리고 미봉책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 섭섭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이 정권이 쓰러진다면 대부분의 재벌들도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고 봐야죠.”

“그러나 우리는 정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는 다만 사업에 열중했을 뿐이야.”

“왜 관계가 없겠어요? 한국의 정치는 이승만의 고루함과 더불어 자본가들의 악덕과 무지스런 탐욕에 좌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남식의 말은 김사장의 폐부를 찔렀다.

“악덕과 무지스런 탐욕이라구?”

“이 놈! 그래 악덕하고 탐욕하고 무지스런 애비가 번 돈으로 먹고 쓰고

공부한 놈은 어느 놈이냐!” (297-298면)

(중략)

“아버지는 지금 이 정권이 무너질까봐 근심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한국에서는 미국적인 자본주의가 자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중략)

“이 정권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것도 실상 그의 독재성보다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해왔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최소한 굶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그 골치아픈 혁명이 필요하겠습니까?” (299면)

미국유학생인 남식은 정경유착과 같은 한국의 고질적인 자본주의의 모순, 저개발의 근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책임이 아버지 감사장과 같은 기성세대 자본가에게 있음을 논파하고 있다. 소설은 이어서 3.15 부정선거와 마산에서 시작된 학생데모도 전달하고 있다. 4.19의 도화선이 된 이 의거는 은경을 짝사랑했던 오빠 친구 박지태가 “선거날 밤 난동에 휩쓸려 죽었다”는 소식으로 소설에 삽입된다. 그의 죽음은 “불의에 항거한 용맹한 사나이”가 아닌 “막다른 골목으로 쫓겨간 발붙일 곳 없는 한국의 무력한 젊은 놈의 말로”로 오빠의 편지를 통해 진술된다. 박지태는 항거나 저항정신을 지닌 혁명기의 청년을 대표하는 자(representer)가 아니다. 그의 죽음은 “젊음이 억압당했던 군대라는, 그리고 현실이라는 형장에서 빠져 나오고 싶”어 선택한 현실 부정의 결과로 기록된다.

소설의 마지막 장인 ‘푸른 운하’는 4.19로 시작된다.

도처에서 일어나는 데모로 하여 세상은 소연하였다.

기대와 위구, 체념과 반발, 절망과 자포, 착잡한 감정을 실은 눈들이 포도 위에 흘러갔다. 경적을 요란스럽게 울리며 백차가 지나갈 때 포도 뒤에도 흘러가던 눈은 일제히 그 백차의 행방으로 쏠렸다. 갑자기 생기가 돌아난 눈이었다. 어떠한 사태를 열망하는 눈이었다. 그리고 자유당

날개 밑에서 숨쉬고 사는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한곳으로 한결같이 번져나간다.

철없다고 나무라던 소년들은 영웅이 되었다. 비굴했던 어른들의 가슴에다 희망과 피를 느끼게 했다. 그러나 수치와 회한과 치욕이 그들의 마음을 씹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앞장서지도 않았다.

사태는 피만 흘리고 국민들의 패배로 몰아갈 기색을 나타내었다. 사람들의 걸음은 무기력해지고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막걸리집만 번창하였다.

그러나 마산에서는 다시 맨주먹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봉기하였다. 불사조처럼 일어났던 것이다. 학살과 고문, 위조 공산당, 갖가지 잔인한 수법도 그들을 막지는 못하였다. 김주열군의 시체는 실로 위대한 민주주의 제단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 혜화동에 있는 찬희의 집은 경란에게 넘어갔다. (356면)

(중략) 드디어 독재의 아성은 무너지고 국민에게로 돌아왔다. 혁명의 달 사월은 혼돈 속에 넘어가고 오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다. 이 무렵 장충동 양지바른 곳에 겨우 자리를 잡은 ‘고아원 빛’의 집에 전화가 따르르 울려왔다. (366면)

찬희, 은경과 이치윤이 새로운 삶의 도정에 나서는 데 이 사회사적 사건은 전환점이 된다. 찬희는 자유당 정권 때 빼앗겼던 적성물자를 되찾아 고아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윤변호사와의 육체적 관계를 청산하고, “옛날의 깨끗한 우정으로 돌아가는” 관계의 성숙도 이룬다. 이치윤은 욕망과 협잡이 판치는 서울을 벗어나 귀향하고, 은경은 이치윤의 뒤를 따라 푸른 ‘운하를 파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요컨대 『푸른 운하』는 4.19 당시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마산의 3.15 학생운동의 내용을 나열하고, 4.19는 “드디어 독재의 아성은 무너지고 민권은 국민에게로 돌아왔다. 혁명의 달 사월은 혼돈 속에 넘어가고 오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다.”와 같이 간단하게 서술된

다. 『노을 진 들녘』에서 4.19 혁명의 경과를 신문기사의 적극적 활용, 청년 남성 지식인 상호의 죽음, 영재의 부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는 『푸른 운하』의 연재시기가 4.19를 적극적으로 그리기에는 거리가 안 되었던, 1960년 초반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소설은 4.19의 주체와 이념이 혁명 이후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작품 인물들을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이면적 의미를 탐사할 수밖에 없다. 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치윤, 김남식, 은경과 같은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의 그늘에 있기를 거부하고, 가부장적 가족제도 바깥에서¹⁶⁾ 자신들만의 우정과 연대, 사랑을 구축한다. 남식이 부정축재로 걸린 아버지와 선을 긋고 은경 대신 찬희가 벌인 고아원 일을 돕겠다고 하는 것, 은경이 고향으로 떠난 치윤을 쫓아갈 결심을 하면서 고독한 그를 위해 “운하를 파서 바다를 끌어들일” 것이라고 결심하는 것은 교환가치와 도구적 이성, 소모적인 연애감정을 부정하는 연대와 포용이 혁명 이후 청년-세대가 지향한 혹은 지향해야 할 정신임을 암시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남식이 아버지의 돈을 끌어와서 하는 사업이 출판사업이라는 점이다. 남식이 아버지 윤사장의 ‘악덕과 무지스런 탐욕’을 비판하면서 차린 현대출판사와 잡지 『청조』의 이념적 지향성은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자유당 정권 비판과 국회의원 H 등 정치인의 비리 관련 기사를 써서 문제가 되거나 이치윤이 중동문제와 관련된 원고를 쓰고, 영남지역 농촌 현실을 조사하기 위해 가는 것으로 보아 이 잡지가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을 담은 사상교양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남식, 이치윤과 같은 청년남성-지식인의 사상-교양에의 의지는 4.19 전야 비판적 지식인의 내면풍경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을 진 들녘』은 어떠한가.¹⁷⁾ 4.19를 전후해서 일어난 청년

16) 이치윤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은경은 아버지와 불화하다 집을 떠나 상경한다. 이들에게 가족은 존재하지 않거나 장애물이다.

17) 조윤아는 『노을진 들녘』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4.19의 의미가 퇴색해질 수도 있는

세대와 시민들의 저항은 동섭이 읽는 신문의 기사나 사진으로 간접화되어 등장한다. 〈사라진 고문경관〉, 〈타살 후 물에 던져진 시체〉와 같은 타들이나 기사 내용을 읽고 분노하거나, 아래와 같이 고려대학생들의 시위기사와 사진을 보는 것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고려대학생들이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구보로 달리고 있는 사진이 나 있었다. 종로오가에서 경찰의 제지망을 뚫고 있는 구름때 같은 학생들의 사진도 있었다. 동대문을 배경한 그곳의 버스, 전차, 경찰의 백차 사이로 바져가는 젊음과 울분과 정의의 울부짖음이 사진 한 장 속에서 왕왕 터져나오는 듯하였다. (중략) 신문은 온통 시민의 눈을 뒤집게 하는 기사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거리에 쫓아나가지 않고는 견디어낼 수 없는 기사로 가득 차 있었다. (261면)

그리고 4.19 혁명 당일날의 풍경은 아래와 같이 작가주석적 서술로 기록된다.

사월 십구일, 아침은 밝아왔다. 상오 아홉시 반부터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거리로 터져나왔다. 그들은 지성을 사랑하는 학도답게 평화적 데모를 선언하고 캠퍼스를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동대문 경찰서 근방의 제일방지선에 이르렀을 때 유혈사태는 벌어졌다. 피를 본 학생들은 투석으로 응수하며 방지선을 돌파하고 대오를 재정비하여 다시 전진하였다. 제이경찰대, 제삼경찰대를 뚫었다. 그리고 일로 국회의사당 앞으로 내달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발표되면서, 4.19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그 정치적 전개과정과 민초들의 저항의식을 다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조윤아, 『1960년 전후 박경리의 글쓰기에 나타난 역사 의식』 『내 마음은 호수』, 『노을진 들녘』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29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필자 역시 이런 평가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작품이 지닌 시기적 의의보다는 대중 연애서사와 혁명이라는 상호 이질적인 패러다임이 절합되는 방식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박경리의 4.19 재현 소설이 지닌 고유한 의미를 평가하고자 했다.

그곳에 집결하였다. 서울대학을 전후하여 성균관대학, 중앙대학, 고려대학, 국민대학, 연세대학, 건국대학, 한양대학, 경기대학, 동국대학 등 대학생들과 동성, 대광, 양정, 휘문 등 고교생 수만 명이 거리로 거리로, 분수처럼 몰려나왔다. 순한 양떼들은 **격노한 사자**¹⁸⁾로 변하여 동서남북으로 뒹 서울의 중심지에서 합류하였다. 합류한 이들은 파상적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광화문을 통과하여 경무대로, 법원으로, 내무부로 밀려가고 밀려왔다.

구호와 애국가, 만세소리, 교가, 군가, 아우성치고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눈물을 흘렸다. 연도를 메운 수십 만 시민. 빌딩의 창문마다 매달린 수천의 시민, 박수치고 만세 부르고 목이 터져라 성원한다. 하늘과 땅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호하고 뒹흔들렸다.

이와 같은 장관이 일찍이 어느 역사 속에 있었던가. 아! 장하고 슬기로운 젊음의 힘, 민중의 힘,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해일처럼 독재의 아성을 덮으려는 순간, 장엄한 순간, 순간이다. (262-263면)

“아! 장하고 슬기로운 젊음의 힘, 민중의 힘”, “장엄한 순간”이라는 작가의 격정적인 목소리는 4.19의 주체가 청년, 그리고 민중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어서 소설은 학생 시위대가 경무대로 진출하다 효자동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경찰의 발포에 쫓기는 긴박한 상황을 서술한다. 이른바 ‘피의 화요일’로 알려진 4월 19일의 상황이 소설에 재현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시위현장을 스케치한 신문 기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위 예문은 서사 전개에서 이질적이다. 동섭, 영재, 상호는 혁명이 있기 전 가망 없는 연애에 몰두하거나, 청년 세대 특유의 무력감에 시달리거나,

18) 김미란에 따르면, 혁명 직후 널리 쓰인 ‘젊은 사자들’이라는 수사는 1960년 4월 26일 개봉된 전쟁영화 <젊은 사자들>에서 빌려 온 표현이다. 이 수사적 정의는 『젊은 사자들 다시 상아탑으로』(『경향신문』, 1960. 4. 29, 3면)나, 『노한 사자들의 증언』(『사상계』 제83호, 1960. 6)에서 처럼 대학생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살리기 위한 표현으로 당시에 자주 채택되었다. (김미란, 앞의 논문, 80-81면) 본문 예문에 필자가 강조하기 위해 굵게 표시한 ‘젊은 사람’, ‘격노한 사자’라는 표현은 박경리 역시 이런 당시 매체의 표현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이다.

근친상간의 죄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연히 시위현장과 마주치고 현장에 뛰어든 것¹⁹⁾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호는 총탄에 맞아 죽고, 영재도 심장을 맞는 심각한 부상을 당한다. 4.19의 현장은 서사에서 사라지고, 다시 지리멸렬한 일상과 진전없는 연애, 주실의 상경으로 촉발된 추격전과 복수극이 전개된다.

하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4.19는 인물들 간의 여러 겹의 삼각관계를 해결하고, 청년 세대들이 건전한 삶을 모색하는, 일종의 전환점 역할을 한다.²⁰⁾ 먼저 영재는 4.19 이후 혼란한 정황에 실망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는 “경무대로 밀고 가던 그때의 심정은 결코 애국애족에서 우리나라의 의분은 아니었”고 개인적인 고통을 내던지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일구를 전후한 송노인의 자살과 상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상호가 죽을 때 남겼던 ‘쑥스럽다’는 말을 떠올리는 것을 보면, 그가 4.19를 계기로 죄책감, 책임감과 같은 도덕감정을 가지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영재가 성삼과 함께 죽음을 택한 것은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속죄하고 주실이 착취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책임을 지려는 윤리적 결단인 것이다.

송노인의 죽음과 영재의 희생으로 주실은 비로소 성삼의 폭력에서 벗어난다. 동섭의 교육을 통해 미개와 야만의 상태에서 벗어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회복한다. 영재를 둘러싸고 또다른 삼각관계를 이루었던 일혜와 수명은 어떠한가. 일혜는 영재와 지지부진한 연애관계를 끝내고 미술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떠난다. 의대생 수명은 과외교사로 있던 집의 주인인 박민 상무의 프리포즈를 거절하고 영재를 선택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미국행을 결심한다. 이 여성-청년-지식인들 역시 연애의 상실/성취를 통과의례처럼 경험한 후

19) 이를 영재는 ‘의지 이전의 행동’이라고 말한다.

20) 조윤아 역시 4.19가 모든 인물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평가한다. 필자도 이 관점에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 조윤아, 앞의 논문, 73쪽.

다음의 삶을 주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장의 시작에서 말했듯이 4.19 혁명이 신문기사, 리포트, 작가주석적 서술로 멜로드라마에 기입, 기술되는 것은 박경리의 4.19 재현 소설의 고유한 특징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하고, 4.19의 정신이 4.19 이후 청년 세대에게 미친 영향력은 텍스트의 이면을 섬세하게 읽으며 찾아낼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연대와 포용, 책임감과 도덕감정의 회복이라는 청년 세대의 정신은 4.19 혁명이 짧지만, 객관적으로 작품에 기록됨으로써 개연성과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4. 결론-포스트 4.19 1년, 연대와 순수의 시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푸른 운하』와 『노을 진 들녘』은 표층적으로는 멜로드라마의 공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4.19 혁명을 신문기사나 리포트, 작가의 직접적인 해설을 빌려 삽입하는 식의 서사전략을 구사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4.19의 서사화 방식은 연재 및 발표 시기를 고려해야 하고, 60년대 박경리 장편대중소설들이 사회역사적 변동을 다루는 방식을 고려해서 이면적 의미를 섬세하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소설은 남성작가-단편소설-본격문학 중심으로 공고하게 위계화된 60년대 문학 장의 외부에서 여성작가-장편소설-대중문학이 혁명이라는 사회역사적 장면을 ‘다른’ 방식으로 그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의 외연을 확장하고, 대중소설의 정치성을 재고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두 소설은 젠더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젊은 사자들’, 즉 ‘남성-청년-지식인’이 주도하는 소설로 읽힌다. 『푸른 운하』의 은경, 『노을진 들녘』의 주실은 남성-지식인 혹은 중산층 부르주아의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는, 4.19와 관련된 담론과 평가에서 배제되어 왔던 하위주체들에 가깝다. 이들은 서사에서 4.19 혁명에 관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하지

만 여성작가의 소설에서 침묵한 것, 감춰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페미니즘 이론의 고전적 명제를 상기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은경과 주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거나 안착한 곳이 4.19의 역사적 현장인 서울이 아닌 고향·시골인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쫓아가는 이들의 순정과 순수는 4.19 혁명의 현장이 내뿜었던 분노, 열정, 그리고 4.19 이후의 격동의 상황에 비춰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4.19 이후 대학생·청년·지식인은 ‘젊은 사자들’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영광스런 주체가 되었으나, 1950년대 내내 대학생이나 청년 집단은 무기력하고, 책임관념이 없고, 정열과 양심을 잃은 오염된 집단으로 비난을 받았다. 4.19는 이들이 무기력과 불안, 우울을 털고 혁명의 주체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들은 4.19 이후에 어떻게 변해갔는가. 4월혁명 직후 대학생 중심으로 전개했던 ‘신생활운동’²¹⁾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청년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군사정권 주도의 ‘재건국민운동’으로 변질되었다. 서울대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여성판 신생활운동은 실은 국산품 애용운동에 가까운 것이었다.²²⁾ 1961년 이후 지식인들은 그 어느 계층보다도 빠르게 혁명의 의미를 망각한 채 사그러들었다. 여성에게는 국가가 요구하는 현모양처로서의 역할이 주어졌고, 청년들에게 주

21) ‘신생활운동’은 “혁명과업의 수행”이 “무엇보다 먼저 과거의 부정부패 정권이 형성해놓은 정신적 독소인 허영된 풍조를 깨끗이 씻어버려야 한다는 취지 아래” 1960년 7월 초부터 학생대표 각계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족된 신생활운동본부의 주된 사업이다. 이 신생활운동은 서울대 문리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혁명완수의 제2단계로서 경제혁명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22) 권보드래는 신생활운동이 4월 혁명 후 ‘젊은 사자들’의 활동을 정치가 아닌, 학원(學園)과 생활과 근로의 영역에 국한시키려는 사례라고 본다. 또 남성-대학생 중심의 농촌계몽운동보다 여대생들의 신생활운동은 ‘아프레갈’, ‘자유부인’으로 상징되는 1950년대 위험한 여성들을 혼란, 사치, 허영으로 낙인찍고,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보내려는 시도라고 본다.

권보드래, 『아프레갈 변신담 혹은 신사임당 탄생설화』, 『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권보드래·천정환 지음, 천년의 상상, 2012, 488면.

어진 자리는 광장이 아닌 다방과 술집, 골방이었다.

필자는 4.19로부터 5.16에 이르는, 그 이후의 보수와 반동의 시간 전의 어떤 기간을 이 소설들이 반영한다고 본다. 즉 4.19 이전의 절망과 불안, 우울, 5.16 이후의 반동화 사이에 낀 1년 남짓의 시간은 아직까지는 젊은 세대의 쇄신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박경리는 쇄신을 통해 자기와 공동체를 구제할 존재로서 젊은 세대에 대한 기대를 작품에 그렸던 것이다. 세대적으로는 청년, 지리적으로는 고향·시골을 순수와 순정, 노스탤지어와 재생의 의미로 텍스트에 새겨넣음으로써 4.19 이후의 열망과 기대를 서사화한 것이다. 『푸른 운하』의 은경, 『노을 진 들녘』의 주실, 그리고 동섭, 수명이 서사의 마지막에 자리하는 것은 포스트 4.19에 해당하는 짧은 1년간 순수, 순정, 연대의 윤리가 귀환했던 시기에 대한 박경리의 희망을 드러낸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박경리, 『푸른 운하』, 지식산업사, 1987.
 박경리, 『노을 진 들녘』, 지식산업사, 1979.

2. 단행본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 서사 장르의 모든 것-1, 멜로드라마』, 이론과실천, 2007.
 진선영, 『한국 대중연애서사의 이데올로기와 미학』, 소명출판, 2013.
 린 헌트, 조한욱 옮김,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새물결, 1999.
 레이 초우, 정재서 옮김, 『원시적 열정』, 이산, 2004.
 벤 싱어, 이위정 옮김,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피터 브룩스, 이승희 · 이해령 · 최승연 옮김,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3. 논문 및 기타

강지희, 「4.19 혁명의 재현과 여성 시민권의 창출 -박경리와 손장순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7-35면.
 권보드래, 「아프레겔 변신담 혹은 신사임당 탄생설화」, 『1960년을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권보드래 · 천정환 지음, 천년의 상상, 2012, 465-505면.
 김미란, 「‘젊은사자들’의혁명과 증발되어 버린그녀들-4월혁명의 재현 방식과 배제의 수사학」, 『여성문학연구』 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79-118면.
 김양선,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페미니즘연구』 8(2), 한국여성연구소, 2008, 197-222면.
 김양선, 「향토 멜로드라마와 여성의 위치성-박경리의 『과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69-292면.
 백지연, 「4.19혁명과 젠더평등의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81-107면.
 이정옥, 「멜로드라마, 도덕규범과 감정을 조율하는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발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5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9, 9-54면.
 장성규, 「혁명의 기록과 서발터니티의 흔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11-30면.
 조윤아, 「1960년 전후 박경리의 글쓰기에 나타난 역사의식『내 마음은 호수』, 『노을 진 들녘』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29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소, 2011, 59-79면.

추선진, 『4.19소설의 여성 표상 연구-연애/가족 서사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57-80면.

<Abstract>

Narrative Articulation of Melodrama and 4.19 Civil Revolution

—Rereading on Park Kyung-ri's popular romance novels in
1960s, *Blue Canal* and *Sunset Field*

Kim, Yangsun

This paper seeks to correct the uniformity of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and novel which represent 4.19 civil revolution in two aspects. The first is to reread the meaning of popular romance novels that communicated with the public around the existing male-centered literary field in 1960s, composed of pure literature and short stories. The second is actively reread the woman writer's popular romance story that has been excluded from the prior research about male-youth-intellectual oriented 4.19 novel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narrative articulation between melodrama and the 4.19 civil revolution in Park Kyung-ri's 1960s popular romance novel *Blue Canal* and *Sunset Field*. *Blue Canal* and *Sunset Field* melt the state of political, economic and moral chaos and instability at the end of the Liberal Party's regime into the melodrama style. While highlighting melodrama's 'moral occult', 'sensationalism' and dichotomy of good and evil, these novels contrast the gloomy but pure love of the younger generation with the older generation's love which is connected with money, power. In both novels, hometown-country means the place for purity, hope and nostalgia for the younger generation. The fall of the villain, the triumph of the good, the purity that overwhelms sensationalism

and violence show the writer's anticipation about young intellectuals in post 4.19.

In chapter 3, I noted that two novels narrated the 4.19 civil revolution by borrowing newspaper articles, reports and writer's direct comments. It can be evaluated that unique features of writer's 4.19 novels. Acknowledging such narrative characteristics, the influence of the 4.19 spirit on the younger generation can be found by reading the texts carefully. The spirit of the younger generation- solidarity, generosity, sense of responsibility and restoration of moral feeling - could achieve the probability and justification through the short but objective recording about 4.19 civil revolution.

In conclusion, the two novels provide clues to expanding the outer space of literary history and reconsidering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popular novels. Because woman writer's popular literature shows the social and historical scene of revolution in a 'different' way. The novels' time background between pre-4.19 revolution, the time of despair, anxiety, depression and post-5.16 recidivism, was the time that the younger generation was still able to reform. Park Kyung-ri showed her expectation for the younger generations who change themselves and the community through reformation.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 hometown or country engraved in the texts mean purity, nostalgia, and regeneration, and these embody the writer's aspiration and expectation about post 4.19.

Key words: 4.19 Civil Revolution, romance novel, melodrama, moral occult, sensationalism, youth, purity

투 고 일 : 2020년 2월 24일

심 사 일 : 2020년 2월 26일-3월 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3월 26일